



‘글을 낳는집’ 서 창작을 하고 있는 조성국 시인(왼쪽부터), 강병철 소설가, 조명희 시인, 박마리 소설가, 김규성 시인(총장), 홍종의 동화작가, 이순임 소설가.

“이곳에 오면 누구라도 글이 술술~”

담양 문예창작촌 ‘글을 낳는집’ 김규성 시인 2010년부터 운영 지난해 35권 창작집 출간...강석경·이도흠 등 300여명 다녀가

흔히 말하기를 창작은 산고의 과정이라고 한다. 고통이 수반 되는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치 거미가 활활 실을 뽑아내듯 머릿속의 영감을 구현하기도 한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거미처럼 글을 뽑아내는 문인들을 가장 부러워한다.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순풍순풍 글을 날게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다. 어떻게 하면 글을 그렇게 술술 풀어낼 수 있을까. 담양 ‘글을 낳는집’. 이곳은 문인들이 일직간 속삭이를 해결하며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2010년부터 김규성 시인이 담양(대덕면 용대리 555번지)에 터를 잡고 문을 열었다. 창작을 하는 시인이기도 한 김규성 씨가 이곳의 실질적인 총장이다.

그는 “글을 손이나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낳아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며 “유명 문학관이나 호화 펜션에 비해 작고 조촐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쾌적한 천혜의 무공해 청정지역에 터를 잡았다”고 말했다.

원래 그의 고향은 영광이다. 50대 중반까지 가장으로 장남으로 대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시인은 이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다. 뒤늦은 나이에 문단에 등단한 터라 늘 가슴속에는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자리했다. “더 늦기 전에 창작에 몰입하고 싶다”는 생각은 문예창작촌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2010년 교육과 창작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해 문화예술위원회에 신청을 했다. 당시에 운영 조건이 지원 50%, 자부담 50%였다. “지금은 자부담 비율이 조금 줄었지만 대신 인건비나 식재료비가 적잖이 소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글을 낳는집’은 예상했던 모습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광

주에서 담양 창평면까지는 곧잘 오가는 길이지만, 창작촌이 자리한 대덕면 용대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가지 않는 길이었다. 산중의 도로는 2차선의 비좁은 도로였으며 인적이 거의 없었다.

“도시의 찌든 스트레스를 훌훌 떨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절로 와 닿았다. 산을 굽이굽이 넘고 나니 약간의 평지가 보였다. 앞뒤로 산이 에워싸고 있고, 옆으로는 약간의 농토가 보였다. 도시와 절연된 터라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을 환경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십 폭이나 되는 향이었다. 총장의 부인 김선숙 씨가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었다.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은 김선숙 씨를 가리켜 ‘약선요리 전문가’라고 했다. “음식을 잘한다.” “음식 맛이 좋다”보다 더 뛰어난 상찬으로 들었다.

이곳에는 7명의 문인들이 입주해 글을 쓰고 있다. 한번 입주를 하면 3개월간 머물 수 있다. 신춘문예나 우수문예지로 등단을 하고 최근 5년 이내 작품집을 발간한 문인 등이 요건이다. 현재 조성국 시인, 강병철 소설가, 조명희 시인, 박마리 소설가, 홍종의 동화작가, 이순임 소설가가 저마다 치열하게 창작에 몰입하고 있다.

홍종의 동화작가는 “이곳에 있으니 너무 글이 잘 써진다. 지난 1월에 입주했는데 그동안 두권 분량의 동화를 썼다”고 말했다. 조명희 시인은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깬다. 예전에는 9시에 일어났는데 이곳에서는 6시에 기상을 하니 하루를 알차게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작가는 “성상소설 1000매 초고를 타고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쓴 덕분”이라며 웃었다.

이들은 창작도 창작이지만 힐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주위 환경이 창작뿐 아니라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조성국 시인은 “광주를 떠나 이곳에 오니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느낌이다. 인근 삼나무 숲을 산책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고 말했다.

입주 작가들은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의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는데 이만큼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이들도다. 강석경, 송기원, 이화경, 이도흠 작가와 김이들, 신덕룡 시인 등이 입주 작가로 활동을 했다. 지난해 입주한 권달웅 작가는 동리목월문학상을, 이화경 작가는 현진건문학상을 수상했다.

“매년 20여 권의 창작집을 발간하는 것 같아요. 작품으로 따지면 150여 편을 발표하구요. 지난해에만 모두 35권의 작품집을 냈으니까 적잖은 성과죠.”

총장의 얼굴에 자부심이 어려졌다. 이곳은 연중 입주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격년제로 입주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집필실이 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는 문의(010-8643-2386)하면 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담양 ‘글을 낳는집’ 전경.



임용현 작가



하성욱 작가

3월부터 온라인 ‘GB작가스튜디오탐방’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광주비엔날레 작가스튜디오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작가 작업실을 방문, 동시대 미술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와 작업세계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38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단편을 만들어가며 지역작가들을 연구해왔다.

지역작가와 소통 및 매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GB작가스튜디오탐방이 3월부터 진행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올해 작가스튜디오탐방 운영방식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대 흐름에 맞게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작가스튜디오탐방 참여작가는 ▲3월 정유승(영상·설치) ▲4월 조정태(회화) ▲5월 하성흡(회화) ▲6월 임용현(영상·설치) ▲7월 문선희(사진) ▲8월 박인선(회화)이다.

올해부터는 차별화된 운영방식으로 참여 작가의 작업을 개괄하는 20분 분량 인터뷰 영상을 제작,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3월 참여작가인 정유승 작가와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은 28일 공개된다.

- 3월, 정유승(영상·설치)
- 4월, 조정태(회화)
- 5월, 하성흡(회화)
- 6월, 임용현(영상·설치)
- 7월, 문선희(사진)
- 8월, 박인선(회화)

이와 함께 작가스튜디오 탐방의 목적인 작가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혼, 양초롱, 윤익 비평가와 참여 작가를 매칭했으며 비평가의 작가 연구 결과물은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매달 선보인다.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커피 교환권 이벤트는 프로그램 시작 전인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작가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참여자와 뉴스레터 구독 희망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구글폼(https://forms.gle/2hfu8zBzbDLA3J3t9)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10명의 당첨자는 28일 발표한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글 문자화’



‘아리랑 연작’

자음모음이 어우러져 ‘한글민화’

금보성 작가 기획초대전, 15일~4월 15일 우재길미술관

‘한글 문자화(文字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익숙한 한글을 해체,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 다. 낱말이 흩어진 모음과 자음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우재길미술관(관장 김자순)이 올해 첫 전시로 금보성 작가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한글민화’로 조선시대 민화 정신을 현대 회화로 재조명한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문자화의 맥을 잇고 있는 금 작가는 문자 중에서도 한글을 소재로 작업한다.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인 그는 시를 쓰던 중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에서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후 글자에 색깔을 입히고 조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금 작가는 한글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자를 해체하고 추상적으로 재구성한 다. 그는 한글의 단어를 자음과 모음의 기본 조형

으로 해체하고 화면에 재구성해 배치한다. 그의 한글 문자화는 천진인 사상과 신명의 놀이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리랑 연작’ 등 다양한 색면이 어우러진 작품은 풍성함을 전하며 단색 글자의 자유스러운 배열 위에 포인트 처리된 다양한 그림들이 흥미로움을 더한다.

금 작가는 사랑, 행복, 성공, 감사, 축복 등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단어들을 선택해 작업한다. 단어들의 자음과 모음을 마치 옷놀이 하듯이 던져 만들어진 ‘우연’을 다채롭게 배열해 구성한다.

금 작가의 작업은 2차원적인 회화에 머물지 않고, 조각과 설치, 영상작업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홍익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금 작가는 금보성아트센터 관장, 한국예술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70여회가 넘는 개인전을 여는 등 한글 문자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전통춤 가락의 멋과 소리’

목요일연국악한마당, 17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생동하는 봄, 남도 전통 춤가락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17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목요일연국악한마당 ‘남도 전통춤 가락의 멋과 소리’ 공연을 펼친다.

남도 전통춤의 맥을 잇고자 기획된 이날 공연에는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도춤가락연구원(원장 박순영·사진)을 초청했다.

무대에는 남도전통춤가락연구원 단원들과 함께 소리꾼이자 작곡가인 김상우, 권영문 한국민속창극보존회장 등이 오른다.

첫 무대에서는 황진이와 벽계수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엮어낸 ‘황진이의 시와 무(장작무)’,

춘향과 이도령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송향(사랑무)’, 한량들이 놀이판을 펼치며 즐긴던 모습을 표현한 ‘신한량무(임이조류)’ 등 전통 무용의 다양한 진수를 보여준다.

이어 국악가요 ‘봄날은 간다’, ‘에스터데이’, ‘꿈꾸는 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배피워라’, ‘강원도아리랑’, ‘벚노래’ 등 전통 국악가요도 연주한다.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국악원, 생활국악 음반 발매...이한철 등 참여



국립국악원은 MZ세대를 겨냥한 6장의 국악싱글 앨범을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5일 발매되는 ‘생활음악 시리즈 21집: 국립국악원x이한철’에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경기잡가 ‘달거리’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곡한 곡을 실었다. 대중가요 버전은 이한철이, 경기민요 버전은 소리꾼 김준식이 노래한다.

4월 8일에는 ‘국립국악원x이지수’가 발매된다. 영화 ‘올드보이’, ‘건축학개론’ 등의 음악감독

으로 참여한 이지수는 가사 ‘백구사’와 ‘수양산가’를 한 편의 파노라마 영상처럼 재해석했다. ‘백구사’는 가계 이동영(국립국악원 정악단원)과 가수 에스진의 음색으로 만날 수 있고, ‘수양산가’는 양금 연주자 최휘선이 연주한다.

다음 달 29일 발매되는 ‘국립국악원x김건’에는 희망의 환상곡인 ‘힘내라 대한민국’, 고난과 좌절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노래인 ‘괜찮아’ 등 3곡이 수록됐다. 작곡가 김건은 김동률, 박정현, 엑소, 동방신기, 아이유, 안연애 등 대중가수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했다.

/연합뉴스